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보고서

작성자 : 정선화(진보네트워크센터)

세션명	워크숍3. 4차 산업혁명시대 플랫폼 경제와 노동			
일시	2019.7.5.(금) 11:00~12:30		장소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참석자	사회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발제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패널	이성중(플랫폼노동연대, 대표)		정미나(코리아스타트업포럼, 팀장)
		최영미(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 대표)		
플로어	약 40명 참여			

제안내용	<p>디지털 기술이 확산되자 개별적으로 정보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중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플랫폼 경제’는 사용자에게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급격히 성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이 파편화되고, 전통적인 고용관계로는 포착할 수 없는 특수한 노동유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p> <p>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노동’은 기존처럼 공동의 작업공간을 기반하는 노동이 아니라 서비스의 수요가 있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닌다. 새로운 형태의 노동인 만큼, 또 플랫폼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는 만큼 기존의 노동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p> <p>플랫폼 기업이 다양한 사업모델을 활용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며 플랫폼 노동자와 동반성장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사업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 실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노동권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 플랫폼 경제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요약내용	<p>김종진 부소장은 온라인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워크, 호출형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수행하는 킷 노동 등 플랫폼 노동의 종류를 설명하고,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노동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라고 짚었다. 그런 만큼 아직까지 전체 노동자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자료가 없고, 그들을 위한 보호체제 역시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해외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의 불안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p> <p>김 부소장은 플랫폼 노동에는 특히 초저숙련 일자리가 많고, 따로 대단한 혁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이 디지털화된 것일 뿐이기 때문이라며 기존에 그들을 보호해왔던 노동의 권리가 적용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적어도 안전, 보건, 사회 보장 등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p>

논의 세부 내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광석 교수의 사회로 플랫폼 사업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실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노동권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플랫폼 경제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선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패널로 참석한 플랫폼노동연대 이성중 대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산재로 인해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마주한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이 대표는 디지털 플랫폼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곧 거래비용이라며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의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 비판했다. 아울러 플랫폼 노동자가 노사관계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점, 앞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점 등을 들어 정부가 사회적 제도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팀장이 플랫폼 업체가 단순히 노동자를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시장을 대체하는 등 소비자의 접근성을 위해 개발비용을 들이는 만큼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정당한 수익 모델이라고 산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의 근로기준법이 매우 경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라도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노동자 권리보장 논의의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 최영미 대표는 현 시점은 정부와 기업은 규율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이며, 노동 당사자들은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플랫폼협동조합을 만든 계기를 노동자가 소유하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고 파편화된 노동 속에서 내가 당하는 역울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며, 노동자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 기존의 플랫폼 노동조직이 라이더, 대리운전 등 남성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왔던 부분을 짚으며 여성 노동자, 특히 가사노동자들을 위해 나설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발제자인 김종진 부소장이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사회적 제도가 바뀔 필요성과 함께 이 사회와 사회 구성원, 플랫폼 노동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